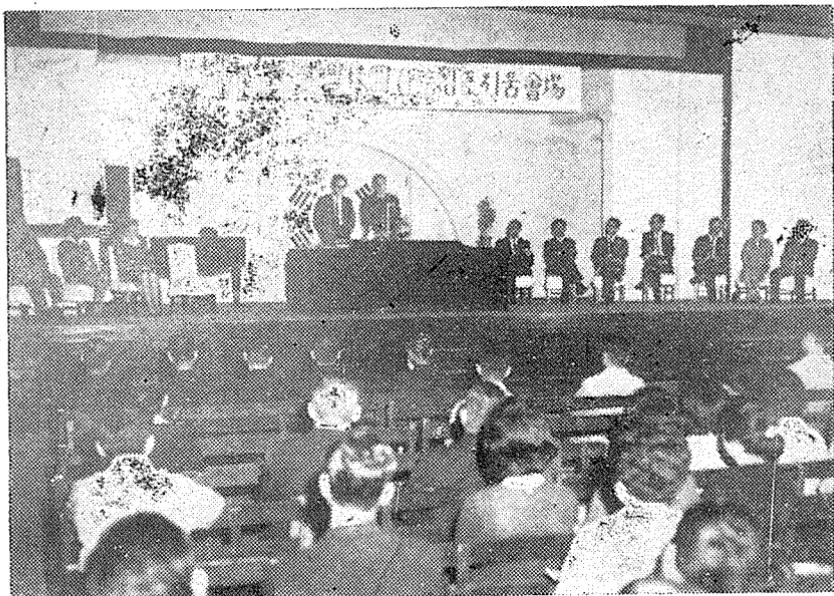


學校圖書館 심포지움

日時 1964年 4月 15日

場所 京畿高等學校 講堂



開會式

1. 開會宣言
1. 國民儀禮
1. 開會辭
1. 祝辭
1. 포스타當選者施賞
1. 學校圖書館 심포지움

(1) 演題 學校圖書館의

教育的役割

演士 鄭泰時先生

(大韓教育聯合會事務總長)

- (2) 演題 教育方法 改善과
學校圖書館
演士 金鍾喆博士
(中央大學校 教授)
- (3) 演題 資料쎈타로서의
學校圖書館
演士 李鳳順先生
(梨花女子大學校 教授)

1. 協議會

1. 其他

1. 圖書館奉仕에 關한 映畫上映

1. 閉會

決 議 文

國家發展과 民族文化 繼承의 要繙인 圖書館이 沈滯와 後進을 벗어나지 못하던 中 圖書館法이 制定公布되어 이 땅에도 봄을 마지함과 같이 圖書館 發展의 쪽에 틀수 있는 曙光이 비치는 바입니다.

同法施行과 더불어 學校教育에 이바지 해야할 學校圖書館 本然의 機能과 奉仕를 再檢討하고자 마련된 第1回 圖書館週間을 마지하여 1964年4月15日 學校圖書館 심포지움에 모인 우리들一同은 民主社會發展과 教育의 質的 向上에 이바지 할 수 있는 學校圖書館을 設置運營하여 하오나 다음에 建議하는 事項이 未備하여 隘路가 있으니 政策立案에 配慮 있으시기 仰請하나이다.

1964年 4月 日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

會長 閔泳珪

建 議 事 項

1. 圖書館法 施行令을 早速히 公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圖書館運營費(圖書費)를 增額해 주시기 바랍니다 (現 自律經費에 包含된 圖書費 月5원으로 된것을 20원以上으로 增額徵收할 수 있도록 行政措置要望).
3. 教育公務員法 및 同法 報酬規程 改定要望
教育公務員法 資格基準에 司書教師는 上位職으로 升進할 수 없고 實技教師와 같은 位置에 있으며 初任號俸이 一般教師와 差異가 있음은 圖書館法 第25條에 規定된 國民校以上 學校에 義務的으로 設置べき 目的達成에 支障이 있을 것 같으니 是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4. 文教部, 市·道教育委員會, 市·郡教育廳에 圖書館 擔當獎學體系를 確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5. 司書教師 T.O配定을 바랍니다.

〈學校圖書館 심포지움에서 發表한 論文〉

1. 學校圖書館의 教育的役割

鄭泰時

(大韓教育聯合會事務總長)

朴大統領은 우리나라 國民이 先進國家처럼 잘 살지 못하는 重要한 原因들은 다음과의 세 가지라고 말씀하였는데

1. 人口가 많고
2. 教育에 投資한 돈이 現在로서는 消費의이고(充分한 利潤을 얻지 못하는)
3. 國防費의 負擔이 너무 많다고 指摘하신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問題中 두째번의 教育에 關한 事項을 考察해 볼 때 學校를 卒業하면 教育이 끝나는 것으로 認識하기 쉬우나 實은 數年間 學校를 다니고 卒業한다는 것은 學校에 다니는 동안 各自가 自己發展을 繼續할 수 있는 能力を 詰려주는 基礎的訓練에 끄치는 것이지 卒業이 決코 教育의 完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投資에 對한 利潤을 가장 많이 얻으려면 自己가 自己發展을 為한 教育을 繼續 이끌어 나가 社會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能力의 基礎的訓練을 해야 하고 이訓練은 讀書라는 方法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教育에 있어서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實은 教育 本然의 目的을 為한 姿勢보다도 學生들 大多數가 가장 重要한 時節(讀書하는 時節)을 試驗準備에 서 달려 教科書以外의 讀書란 生覺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學校에 圖書館施設이 없어서 讀書를 하고 싶어도 책

한권 求해 읽을 수 없는 環境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讀書生活이 習慣化되지 못하여 새로운 知識을 開拓하지 못하여 卒業한 후에는 책과 담을 쌓게 되어 結局 卒業을 為한 學校를 다니는 結果가 되어 教育에 投資한 돈이 많은 利潤을 얻지 못하고 消費가 된다는데 큰 原因이 있다고 하겠다. 그例를 들어보면

우리 나라의 教育을 들이켜 볼 때 그것은 한낱 教科書 中心이며 學校教育와 職業教育이 分離되었고 지금까지 入試競爭이라는 조바심에 억눌리여 曙記式(注入式)이란 典型的인 教育을 하여 量的으로는 과잉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專攻한 自己知識을 應用하고 活用할 能力이 不足하여 專攻分野와 다른 方向의 職業을 擇해가는 實情이다. 最近 中央教育研究所의 統計에 依하ည 綜合大學校 學生 萬名을 對象으로 調查한 바 文科系統을 卒業한者中 專攻한 科目과 關係가 있는 職場에서 일하고 있는 數의 比率은 全體의 18%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82%는 自己의 專攻과 다른 分野에서 일하고 있는 形便이다. 이러한 點을 보아도 教育方法을 改善해야 할을 느끼게 된다.

어떤 教育學者の 말을 빌리면 教育의 理念이나 制度面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1. 그 나라의 社會와 文化에 直結된 數

育을 하고 있는 나라는 美國과 佛蘭西이고

2. 그 나라의 社會와 文化에 關係없이 어떤 思想家나 團體가 構想한 社會概念을 教育의 目的으로 하는 國家와
3. 그 나라의 現實의인 社會와 文化에 關係없이 다른 나라의 社會制度와 文化를 그대로 移植하는 式의 教育을 하는 나라는 日本, 印度, 中國, 韓國이라고 한다.

한편 쏘련과 같이 天才教育을 시도하는 나라에서는 「스프트닉크」와 같은 人工衛星을 世界 어느 나라보다 먼저 地球위에 올리게 되었고 美國의 教育은 平等하고 一般的이나 創意性이 적으며 英國에서는 天賦의인 才能을 發揮할 수 있는 天才教育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 學校圖書館과 教育方法의 改善

金鍾喆

中央大學圖書館長

教育學徒의 한 사람으로서 「學校圖書館과 教育方法의 改善」이란 主題 밑에 몇 마디 所見을 말씀드리고자 하나 부처님 앞에 說法하는 格이 아닐까 한다. 여러분들은 學校圖書館의 理論과 實際運營에 관하여 보다 더 광범한 지식과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제나름으로 생각한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한다.

먼저 現代社會에 있어서 教育方法에 커다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

또한 「제임스·베코낫트」學派는 學年이任意的으로 定함은 非教育의이며 어린이를 한사람 한사람 才能으로 區分하여 教育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方法이 教科書만으로 限定된 時間에 制限된 星의 知識을 가지고는 滿足한 教育이 이루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때문에 多樣의學習資料를 活用하여 自己發展을 繼續해 갈수 있는 施設이 圖書館인 것이다. 오늘날 學校教育을 하는데 커다란比重을 찾이하는 學校圖書館과 卒業후에도 讀書生活을繼續해 나갈수 있는 圖書館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믿으며 이러한 뜻에서 教育에 있어서 圖書館의 役割이 重要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 아니할수 없다. 여기에서 教育方法이란 말은 다소 애매한 概念이나 學校教育의 方法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現代教育方法의 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本人의 생각으로는 세 가지 特徵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多樣性을 말할 수 있다. 別一의 教育方法에서 多樣의·多角의 教育方法으로 跃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옛날의 書堂式 教育方法과 現

代式學校教育方法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는 쉽사리 이해할수 있다. 「堂狗三年이면 吠風月이라」하는 말이 있거니와 이 말은 옛날의 書堂式 教育이 얼마나 劃一的이고 單純한 方法에 의존하고 있었던가를 잘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朗讀과 暗誦에 의한 學習指導法, 權威主義的 訓育方法의 영역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現代學校에 있어서의 教育方法은 正規의 學習活動外에도 生活指導와 課外活動을 포함하여 그 내용이 다채롭고 복잡하기 한량 없다. 學習指導의 形태만 보더라도 講義法만이 아니라 討議法, 問題法(Problem method), 構案法(Project method)등 여러 가지 형태를 달리하는 方法이 사용되고 있다. 教育方法의 多樣性이 現代education方法의 一大 特徵인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異議가 없을줄 믿으며 教育方法의 改善에 관련하여 活用이란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

둘째로 現代education方法의 特徵으로는 그合理性를 들 수 있다. 傳統的方法을 지양하고 科學的·合理的 方法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옛날은 「매를 아끼면 어린이를 버린다」(Spare the rod, spoil the child)하는 式의 學習指導와 訓育方法이 하나의 전통으로 받아드려 졌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人間學習의 心理的研究를 토대로 하여 學習動機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學習의 成果를 거둘 수 있는 科學的인 方法이 多角的으로 모색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追求하고 있는 교육을 흔히 3A를 위한 教育이라 한다. 3A란 Age(年令), Ability(能力), Aptitude(適

性)의 頭文字를 한 글자이다. 年令에 의한 人間發達의 各段階個人의 能力과 適性에 맞춰서 效率의in 教育을 실시한다는 뜻이다. 또한 社會的 要請에 적응되는 教育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教育活動이 所期의 目的에 비추어 合理的으로 영위되고 있는가 目的과手段·方法 사이에 거리가 없는가를 不斷히 評價하고 研究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라는 點이 強調되고 있다. 合理性은 現代人の 모든 生活領域에서 강조되고 있는 根本原理라 말할 수 있지만 특히 教育方法의 一大 特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現代education方法의 또 한가지 特徵은 그專門性이다. 教育의 技術이 高度로 發展됨에 따라서 教育에 종사하는 사람은 長期의in 教育訓練과 素養을 쌓아야 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教職의 專門性에 관한 문제로서 이제까지 많은 機會에 論議된 것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 되겠으나 한가지 例를 들어 보겠다. 1939年에 美國最初의 公立師範學校가 마사츄세트州 Lexington에 설립되었다. 美國教育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Horace Mann이 마사츄세트州 教育監으로 있을 때다. Harvard大學出身의 名校長 Cyrus Pierce를 모시고 開校된 이 最初의 師範學校 第一期生은 단지 3名의 十代少女이었으며 그들의 教育期間은 10~11週 정도였다는 것이 記錄에 남아 있는 사실이다. 그때부터 約 125年이 경과된 오늘날 美國 하와이州에 있어서는 初等教員의 55.9%, 中等教員의 76.3%가 碩士學位持者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註=大韓敎聯과 對等한 미국의 教職團體인 미국전국교육협회(NEA)가 조사한 것에 의하여 새교육에 報道된 것

임. 새교육 1963年 11月號. p. 62) 이것은 좀 특수한例가 될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教職의 專門化는 教育方法의 專門性에 펼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며 그것과 表裏一體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現代教育方法의一般的特徵으로서 열거한 多樣性合理性 專門性은 또한 教育方法改善의 方向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本人의 생각으로는 教育方法의 改善이란 教育方法의 現代化를 促進하는 것이며 그것은 더욱 多樣化되고合理化되고 專門化되는 方向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어느 의미에서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特徵이란 모든 學校教育方法의 現存狀態를 설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先進社會의 現代的으로 운영되고 있는 學校에 있어서의 教育方法의 特徵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많은 學校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러한 方向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以上 現代教育方法改善의 基本方向을 고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教育方法改善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을 어떻게 活用할 것이냐 하는 點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學校圖書館이一般的으로 奉仕와 指導의 二大機能을 가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本人은 教育方法의 改善과 관련하여 學校圖書館의 機能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로 보다 豐富한 學習資料와 參考資料를 제공하고 娛樂과 興味를 위하여 읽을거리 제공해 주는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는 多角的인 教育方法을 動員하고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특히 우리는

個人差에 對備하는 教育, 問題 解決力を 함양하는 教育, 知覺的 經驗을 존중하는 教育, 集團的研究方法을 活用하는 教育方法 등을 강조하고 있다. 學生들로 하여금 學習과 研究를 위해서나 娛樂과 教養 또는 適應을 위한 資料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教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學校圖書館 本來의 第一義的 機能에 屬한다. 이 問題에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保存·保管 第一主義에서 活用本位로 옮아가는 문제와 教師本位에서 學生本位로 轉換하는 문제이다. 勿論 保管이 잘 되어야 活用도 할 수 있고 教師가 잘 活用하면 學生에게 그 效果가 돌아온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活用을 위한 保管이며 學生을 위한 教師임을 잊어서는 아니되겠으며 本末를 전도해서는 아니되겠다. 특히 學生들의 活用을 앞세우면 어느 정도의 分질이나 破損은 覺悟해야 한다는 點을 認識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이 點에 대하여는 行政當局者들의 認識이 아쉽다.

둘째로 自律的 學習의 習性과 氣風을涵養하는 데 있어서 學校圖書館은 獨特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學校圖書館이 있고 學生들이 그것을 活用할 수 있다는 사실만 하여도 學習의 分위기를 조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學生들로 하여금 學習의 動機를 誘發시키는데 그와 같은 全體 雰圍氣는 종대한 要因이 된다. 學生들로 하여금 讀書의 習慣을 기르게 하고 各種 參考書籍 등을 活用하여 스스로 問題를 解결할 수 있는 技術과 能력을 習得하도록 하는 것은 學校圖書館을 통하여 우리가 到達하려고 노력하는 重要目標이다. 이 點에 관련하여 우리는 學生들에

게 적당한 課題를 주는 것이 現代教育의 方法으로서 重要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學校圖書館은 하나의 奉仕機具일뿐 만 아니라 學生들의 讀書에 관한 指導機關으로서 그 機能을 다하여야 한다. 學生들의 讀書에 관한 實態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良書를 추천하며 讀書의 方法을 教育하는 등 讀書指導는 集團的으로 또는 個別의 으로 實施될 수 있다. 최근 淑大 教育科學生들이 某國民學校 5年生을 對象으로 研究한 바에 의하면 5學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은 主로 童話集과 漫畫라 하며 한달에 한권의 책도 사보지 않는 어린이가 半數程度이며 사보는 경우에도 1~2卷 정도라 한다. (青坡教育 第4號, 1964. 1月 이경덕外 "K國民學校 5學年 兒童들의 讀書傾向에 대한 調査") 이것은 극히 조그마한 예에 불과하지만 學校圖書館과 讀書指導의 必要性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本人은 「새교육」이나 「教育評論」 같은 教育誌를 통해서 學校圖書館 運營에 관한 第一線教師들의 實踐記錄을 읽은 일이 있으며 文敎部 嘉獎委員으로서 1963年에 全南地方의 學校圖書館을 實地 踏查한 經驗이 있다. 例를 들어 새교육 1963年 12月號에 나와있는 “國語工夫量 드는 學校圖書館의 運營方案”이란記事는 江原道

江陵國民學校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을 읽기·쓰기·말하기 등 國語敎育의 分野에 活用한 生生한 實踐記이다. 本人은 光州敎大附屬國民學校 其他 여러 學校에서 比較的 完備된 學校圖書館이 學習指導에 活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도처에서 學校圖書館이 크게 發展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

앞으로 教育方法의 改善을 위하여 學校圖書館을 整備 發展시키는 데 있어서는 第一線教師들의 努力도 重要하지만 우리의 現實에 있어서 教育行政家의 임무가 가장 重하다고 생각된다. Horace Mann이 말하기를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나는 씨뿌리는 農夫가 보리밭에 보리씨를 뿌리듯이 全國에 圖書館의 씨를 뿌리겠노라」 ("Had I the power, I would scatter libraries over the whole land, as the sower sows his wheat field.") 하였거니와 그는 1839年 教育區가 學校圖書館 建立에 있어서 半額의 州政府 補助를 받을 수 있도록 法을 制定하는데 原動力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마사츄세트州에 그리고 美國 全土에 圖書館의 씨를 뿌리는 데 成功한 先驅者가 되었다. 오늘날 韓國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의 씨를 뿌리고 있는 여러분의 努力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確信하면서 여러분의 健闢을 祝願한다.

3. 資料 센타로서의 學校圖書館

李鳳順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科長)

學校社會는 어떤 境遇를 莫論하고 教育을 目的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들은 긴 歲月동안 教科書 中心敎育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벌써 옛날 이

야기가 되었고 요사이 새教育을 主張하게 되었습니다. 새教育이란 지금까지 내려오던 教育制度나 教育方法을 고쳐 새로운 方法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教育者들은 教科書만 의지할 수도 없고 神이 아닌 以上先生任의 講義만 의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그려면 이런 缺陷은 무엇으로 补充해야 하느냐가 問題였습니다. 結局은 教育資料를 具備한 「資料센타」 다시 말하면 學校圖書館이 必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學校圖書館은 資料센타로써 現代教育의 心藏役割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教育은 資料센타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學校圖書館은 어떤 理由로 學校教育의 中心이 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가를 몇 가지로 生覺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모든 教科課程은 圖書館資料를 中心으로 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 教室에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圖書館資料를 利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例를 들면 先生任은 미리 必要한 資料를 圖書館에 부탁하여 찾아 주거나 求해 주도록 要請해야 합니다.)

3) 學生들에게 圖書館을 利用하여 스스로 찾아 읽고 배우는 經驗을 길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모든 學校行事는 圖書館資料를 利用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例 演劇部에서 演劇을 하는데 셙스피어 時代 의상이나 무대장치에 관한 資料를 求해 달라고 要請합니다)

이렇게 學校教育의 中心이 되는 圖書館은 資料센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資料蒐

集 및 보다 科學的인 整理와 奉仕를 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1) 圖書館資料는 于先 冊부터 視聽覺資料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합니다. 例를 들면

a. 一般參考書, 百科事典, 言語辭典, 年鑑等을 들수 있고 b. 各單元別 教科書 및 參考圖書와 一般敎養圖書 및 趣味讀書에 이르는 책까지 옮바른 選擇을 거쳐 빈틈없이 蒐集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新聞, 雜誌, 地圖, Pamphlet等을 갖추어야 합니다.

(先生任들은 가르치는 일에 보다 새로운 資料를 찾아 利用해야하고 學生들에게도 속제를 주어 圖書館에서 책을 읽는 習慣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2) 視聽覺資料, 映畫, 幻燈機, 錄音板, 레코드판 그밖에 표본 등.

(우리 속담에도 빼번 듣는것이 한번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말이 있읍니다)

視聽覺資料를 通하여 보여주고 들려주어 紗教育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3) Information File(精報) Picture File(그림) Clipping 等 책이나 다른 資料에서 얻지 못하는것을 모은것 이렇게 모든 資料를 한곳에 모으는 理由는 經濟的이고 찾기 쉽기 때문입니다. 各教室이 個別的으로 모으면 서로 連絡이 안되고 不經濟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을 말하고 學校圖書館은 이러 이러한 資料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資料를 옮바로 選擇하여 蒯集하고 整理하여 先生과 學生들에게 奉仕할줄 아는 司書教師가 必要합니다. 現段階로 우리들의 고민은 어느學校나 다 圖書館에 對한 圖

心은 많으나 專門的인 資格을 가진 司書教師를 採用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圖書室은 아무 教師에게나 마땅히 無放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마치 異護士에게 聽珍器를 주어 患者의 病을 珍察해 보라고 하는 일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이런 理由로 해서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은 發展이 없이 退步하고 있습니다. 資料센타의 원만한 機能을 發揮하기 為하여서는 專門知識을 가진 司書教師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司書教師는 그 學校의 教育理念 및 教科課程에 對한 理解가 깊고 先生任들과 學生들의 要求에도 誠意껏 들을 수 있는 力量과 여러 사람으로부터 人格的으로 尊敬을 받을 수 있고 資料에 對한 豊富한 知識을 가져야하며 資料의 選擇 整理에 있어서 科學의이고 빠른 奉仕活動을 할 수 있도록 方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가지 司書教師의 任務는 學生圖書委員을 두어 그들을 訓練하고 指導하여 圖書館 事務에 協力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學生 圖書委員들은 自身이 圖書館을 利用하는데만 고치는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一

線에서 奉仕하는 經驗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잘짜인 資料센타와 훌륭한 司書教師가 있다 하더라도 利用이 되지 않는 圖書館은 아무 價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學校當局이나 先生任 및 學生들의 協力이 必要합니다. 그리고 學生들에게는 圖書館 利用法을 가르쳐야 합니다.

司書教師는 이런 意味에서 다른 教師들과 同等한 地位에서 學生들을 가르치고指導하는 것입니다. 圖書館 利用法을 배우는 것은 資料센터를 利用하는데 Key가 되고 모든 學問의 入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中高等學校 時節에 圖書館과 친하고 그 使用法에 익숙하면 大學에 가서도 쉽고 卒業後 社會人으로서도 一生을 두고 圖書館 利用에 계율리 하지 않고 익는 習慣을 떠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機會에 學校關係 여러분께 圖書館에 관한 보다 깊은 關心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學校圖書館도 教育資料센타로서 하루 속히 올바른 制度에 오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李丙壽著

圖書分類導論

<分類規程을 中心으로>

259p. 24cm. 定價: 500원

販賣連絡處: 國會圖書館圖書課